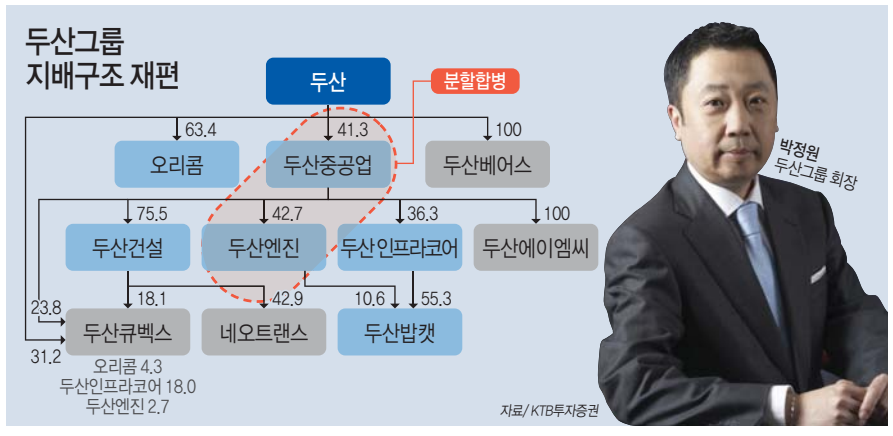
'4세경영' 뒷받침하는 '중공업·인프라·밥캣' 3각편대

2018 기업 지배구조 개편

⑩ 두산

그룹실적 향상… 데뷔는 '성공적'
재무개선 위한 차입금 감축 필요
두산인프라코어, 2000억 상환



두산의 지난 3년간 배당수익률은 보통주 기준 4%, 우선주는 6%에 달한다. 또 2016년부터 해마다 발행 주식수의 5% 수준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산의 독특한 주주구성이 있다. 두산은 박용곤 두산 명예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48.8% 지분을 갖고 있고, 자사주 비중 또한 22.2%로 높아 주주친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다.

◆ 본격 4세 경영 시작

두산그룹은 지난 2016년 초 박용만 두산 회장이 조카인 박정원에게 그룹 회장직을 승계하면서 4세 경영이 본격 시작됐다. 박정원 회장은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이와 더불어 장녀인 박혜원은 두산매거진 부회장을, 차남인 박지원은 두산중공업 회장직을 맡게 됐다.

또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장남 박서원은 현재 오리콤 부사장 및 그룹의 최고광고제작책임자(CCO)를 맡고 있다. 박서원 부사장은 최근 두산의 새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면세점 사업의 전략담당 전무로 선임됐다. 박용만 회장의 존재감은 여전히 뚜렷하다.

박정원 회장의 4세 경영 데뷔는 성공적이란 평가다. 무엇보다 그룹실적 향상이 눈에 띈다. 지난해 두산의 영업이익은 1조5253억원으로 2013년 이후 4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12조원을 상회하는 차입금과 278.4%에 달하는 부채비율은 박정원 회장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 두산 삼두마차 '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

두산그룹의 지배구조는 실질적 지주회사인 두산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두산은 두산중공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시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두산건설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자본확충 등의 재무적대응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2013~2014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발행,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발행 등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본조달이 이뤄졌다. 2015년 이후에는 사업부 매각, 투자주식 매각 등 자산매각을 통해 3조6000억원의 자금조달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재무적 대응으로 그룹의 총 차입금은 2015년 말 14조2065억원에서 지난해 12조6250억원으로 감소했고, 차입금 의존도는 45.0%에서 43.9%로 줄었다.

다만 차입금 감축 이후에도 현금창출력 대비 과중한 차입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차입금 감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그룹 총자산이 줄어 들면서 부채비율은 오히려 2015년보다 늘어났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으로 이어지는 지배력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두산엔진 매각을 결정한 것도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두산은 두산엔진을 두산엔진사업회사(47.4%)와 두산엔진투자회사(52.3%)로 인적분할하고 투자부문을 두산중공업에 흡수합병했다. 사업부문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실제 해당 3개사는 그룹의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공을 세우고 있다.

올해 1분기 두산중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31.75% 증가한 186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또한 1분기 62.8% 증가한 24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달성했다. 두산밥캣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3% 늘었다. 덕분에 두산그룹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5% 늘어난 3508억원을 기록했다.

결국 박정원 회장의 올해 경영도 자회사들의 견조한 실적을 기반으로 차입금 규모를 줄여나가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난 2월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존 대출 중 2000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두산밥캣 또한 차입금 1억달러를 조기상환해 2014년 조달한 17억달러의 차입금을 현재 11억달러 수준으로 줄였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LH, 이천마장지구 시설용지 29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천마장지구 내 일반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29필지, 2만5000㎡를 공급한다.

일반상업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의료시설 등을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병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용적률은 각각 400~500%, 250~350%다. 또한 토지사용은 오는 11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공급예정금액은 상업용지는 15억~34억원(3.3㎡당 590만~72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9억6000만~14억원(3.3㎡당 520만~600만원)으로 최고가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이천마장지구는 이천시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면적 69만㎡, 3328가구로 조성중이다. 영동고속도로(덕평 IC)에서 1.5㎞, 중부고속도로(서이천 IC)에서 4.5㎞에 위치해 있다. 또한 지구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42호선, 지구서측에 연접한 지방도 325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근처에는 다수의 대규모 기업체 및 물류창고, 패션물류단지(3㎞ 위치) 등이 인접해 있다. 지구내 계획된 공동주택용지(6필지, 2,259세대)가 전량 매각되어 아파트 입주예정자, 기업체 및 물류단지 근로자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공급일정은 오는 31일 입찰신청 접수 및 개찰, 6월 7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담당자는 "이천마장지구는 이천시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저렴한 가격에 우량한 투자처를 찾는 실수요자에게는 눈여겨 봐야할 토지"라며 "얼마 전 공급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 속에 100% 낙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한화생명
만성신부전 환우 힐링캠프

한화생명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 만성신부전 환우 및 가족 15쌍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에서 우리가족 힐링캠프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장기기증운동 후원을 위한 '생명나눔의 얼굴' 현판식을 진행하고 1억2000만원의 후원금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생명나눔의 얼굴은 신장기증인들의 나눔정신과 사랑을 기억하고자 건립된 기념비다. 한화생명 서지훈 상무(오른쪽 일곱 번째부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 등이 제주 라파의 집 생명나눔의 얼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KB금융그룹 1000명 뽑는다… 빅데이터 분야서 100명 채용

KB금융그룹이 올해 채용규모를 1000명으로 늘린다.

KB금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 신규채용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4차산업 혁명과 디지털 금융 시대에 대응하고, 금융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약 1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계열사별로 채용 예정인원은 은행(600명), 증권(110명), 손보(50명), 카드(55명), 기타 계열사(185명) 등이다. 은행은 다음달부터 특성화고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채용절차가 시작되며, 다른 계열사들도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KB금융은 'KB굿잡 취업박람회'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다.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연 1회 개최하던 취업박람회를 유관기관과 공동 개최를 포함해 연 5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KB굿잡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이 박람회 기간 중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되는 채용지원금을 채용인원 1인당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업체당 최대 지원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KB금융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인 KB굿잡 취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한 이후 총 12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1만4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주선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화건설 사내웹진 e뉴스레터 창간 10주년

한화건설이 매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내웹진 e뉴스레터가 창간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08년 6월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첫 발행을 시작한 '한화건설 e뉴스레터'는 온라인 형태의 웹진으로 국내외 현장과 본사의 소식을 담아왔다.

16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한화건설 e뉴스레터'는 국내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알리는 '안전24시', 임직원들의 의견과 일상을 담은 '인터뷰 한화건설인', 분양소식을 알리는 '아이러브 꿈에 그린', 회사의 기술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이노베이션 한화' 등 10여개 코너로 구성된다.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는 사내웹진 e뉴스레터 10주년호에 부쳐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선 '수평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내웹진 e뉴스레터에 대한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한화건설이 발행하는 사내웹진 e뉴스레터의 창간 10주년호 메인화면 /한화건설

교보생명 '대학생 아시아 대장정' 참가자 모집

교보생명은 '2018 대학생 아시아 대장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교보생명 대학생 아시아 대장정은 미래의 주인공인 대학생들이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리더 육성 프로그램이다. 교보생명은 대산문화재단과 손잡고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 동안 16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중국, 일본, 몽골 등의 문화를 접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대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부터는 프로그램명을 대학생 아시아 대장정으로 변경하고 탐방무대를 동북아시아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했다. 17회째를 맞은 올해 대장정은 '청춘혁명! 꿈틀거리는 베트남에서 미래로 가는 열쇠를 찾다'를 주제로 오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된다. 참가학생들은 베트남 호치민 일대를 탐방하며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만난다. 현지 베트남 대학생과의 현지 교류는 물론 낙후농촌지역인 벤째성에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국내외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내달 3일까지 아시아 대장정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 온라인전형, 면접 등을 거쳐 남녀 각 30명씩 총 60명을 선발한다.

교보생명은 대장정이 끝난 후에도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전과 열정, 도전과 창의, 팀워크 등을 주제로 다양한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봉준 기자 bj35sea@